

은혜사 통도사 고운사 금산사 동화사 감사

개산대제 잇달아

“초발심으로 돌아가 범통계승” 발원

산을 열어 처음으로 절을 세운 날을 기념하는 개산대제 열기가 전국의 사찰에서 후끈하다. 사찰들은 개산대제를 통해 개산초의 사상과 가르침을 이어받아 사찰의 법통을 바로세우고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한 불교포교를 지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개산대제는 16일 은혜사를 시작으로 17일 통도사, 21일 고운사, 28일 금산사, 11월 3일 동화사, 11월 7일 감사에서 연이어 열린다. 특히 동화사와 고운사 감사의 사찰이 올해 처음으로 개산대제를 봉행한다.

은혜사(주지 법의)는 16일 오전 9시 부도전의 대제례를 시작으로 제 1160년 개산대제 및 주지 진산식, 보살계·만승불사대법회, 산사국악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

한다. 통도사는 17일 경로잔치와 연예인 축하한마당, 여산법회, 구국영령 천도의 밤을 개최한다. 이에 앞서 16일에는 오후 2시부터 제 1회 성보예술제를 개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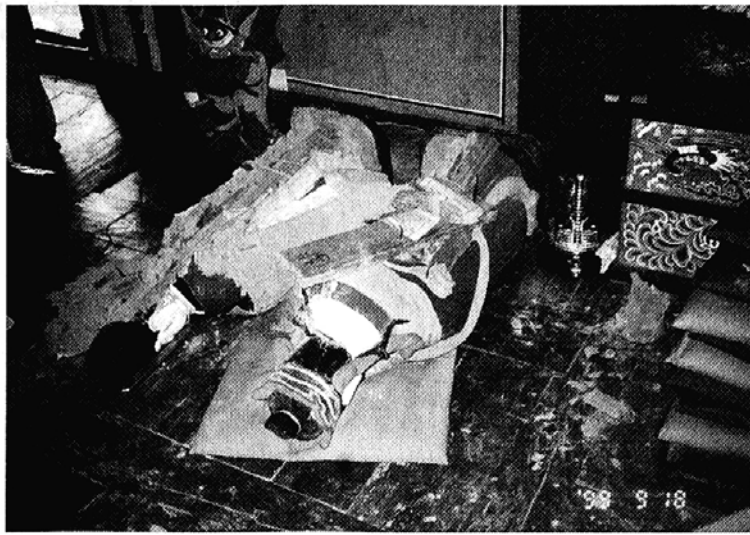
고운사(주지 법조)는 의상대사의 사찰창건 이념을 받들어 경북 지역의 거점도량으로 면모를 일신할 것을 염원하는 개산대제를 21, 22일 이틀간 봉행한다. 고운사는 올해 처음 갖는 개산대제를 계기로 새로운 수행공동체조성과 지역불교 포교거점도량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개산 1400주년 기념행사를 잇달아 벌이고 있는 금산사(주지 도영)는 28일 열리는 개산대제에서 국제보살계 수계식, 제 1, 2차 학

원식, 10만동불사 회향식을 갖는다.

창건후 첫 개산대제를 여는 동화사(주지 성덕)는 11월 3일 오전 11시 통일아시아대법이 있는 호국불교성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민족통일기원대회 개최를 비롯해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불교문화체험마당을 펼친다.

감사(주지 장곡)는 국보 298호 패불을 올리는 패불제를 시작으로 소장하고 있는 월인석보판본을 영인하여 봉행하는 정대불사와 생전 예수제, 성보 및 사진전시회, 1600여 년의 감사를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학술회의, 만승불사등을 개최해 백제불교성지로서의 면모를 만방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복장물을 노린 때강도가 들어와 마구 파괴해 놓은 인동 광흥사 응진전 성보물이 처참하게 훼손된 모습. 이 성보물은 조선 중기~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복원이 불가능할 만큼 심하게 파괴됐다.

안동 봉정사·광흥사 ‘도둑몰살’

정보노린 절도범 불상 39구 파괴 후 도주

울 한해동안 6건의 불상훼손 및 복장물도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찰문화재를 노리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북 안동시 광흥사와 봉정사의 성보물이 절도범들에 의해 파괴되거나 도난될 뻔한 것으로 알려져 성보에 대한 특별방책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요즘들어 문화재 절도범들은 한층 흉포화되어 성토를 노리는 것뿐 아니라 스님들을 칼로 찌르는 등 강도까지 사슴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우려를 낳고 있다.

9월 22일 밤 11시 봉정사(주지 문인)에 김모씨 등 2명이 영선암 창고에 보관중인 조선시대 목경판(1761년 간행)을 훔치는 것을 총무 성목스님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 절도범들은 영선암에서 500여m 떨어진 휴게소 근처에서 그랜저 승용차와 1톤 화물차를 대기시켜 놓고 목판 20여장을

전에 소장된 3존불좌상과 가섭·아난존자입상 2위, 16나한좌상 14위, 동자입상 16위, 제석·사자입상 4위 등 불상 39구가 무참하게 파괴·훼손됐다.

광흥사 현지에 내려가 조사한 조계종 총무원장은 “종단의 사찰문화재 보호요구에 무대책으로 일관한 정부 당국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윤호·오종욱 기자

“사미의제 자발시행” 결의

전국승가학인연 회의

16개 조계종 전통강원을 비롯 중앙승가대 총학생회, 동국대 등 35명의 학인 대표들은 9월 29일 통도사에서 전국승가학인연합 회의를 열고 종단의 사미(나)의제적인 시행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강원 학인들은 제10차 전국전통강원연합 학인대회를 26~27일 법주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스님들의 뜻을 존중해 자발적으로 사미(나)의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중앙승가대학의 경우 총학생회 차원에서 학년별로 자율적인 시행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통도사 금강계단 ‘일제때 개조’

석문·출입구·석축등...“복원공사 절실”

국보 제290호인 경남 통도사 금강계단의 아치형 석문, 출입구, 축 등이 일제에 의해 개조된 것으로 밝혀져 민족정기 회복차원에서 복원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양산시와 통도사에 따르면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의 출입문과 축대 돌간간은 1911년 조선총독부의 지휘로 일본 양식으로 보수공사를 한 뒤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 금강계

단이 일본양식이라는 사실은 지난 97년 10월 통도사가 발간한 “통도사 대웅전 사리탑 실측조사 보고서”에서도 나타나 있다.

금강계단 내부의 일제양식 석물은 사리탑을 보호하는 안쪽 돌출타타 중심에 설치된 높이 1.5m의 아치형 석문과 1층 기단 중앙면석 배례석과 석등 등이다. 또 바깥으로 대웅전을 중심으로 동·서방향으로 대칭되 각각 설치된 길이 12m, 높이 0.6~1.9m의 석축

과 그 중간에 설치된 너비 2m의 돌계단, 높이 0.8m의 돌간간 등이 다.

1900년대 초기에 발간된 “조선고족도보” 사진에서는 금강계단의 축대가 높이 2백30cm의 자연석을 직각으로 쌓은 석축으로 위로는 기와를 얹고 대웅전과 불은 곳에 기와와 목재로 된 전통양식의 출입문이 달려 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박하스님(문화재전문위원)은 “일제강점기라는 지적에 따라 양산시와 문화재청이 보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오종욱 기자

복지프로 당선작 4편

조계종, 5백만원씩 지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불교사회복지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실시한 불교사회복지 프로그램 공모에서 지원작으로 선정된 프로그램 4편을 발표했다. 모두 52편의 공모작 중 지원작으로 선정된 프로그램은 금오사회복지관의

‘노동 복합도시에서의 농촌노인 이동경로복지사업’, 육수사회복지관의 ‘가족기능이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바람직한 활동을 돕는 집단활동프로그램’, 삼전사회복지관의 ‘저소득 결손가정 청소년을 위한 새천년교실’, 관음대비원의 ‘노인복지시설 어르신 여가활동 프로그램’ 등 이들 프로그램은 복지재단으로부터 500만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한명우 기자

통도사 주지 2명(?)

정확측 신허스님 선출 총무원 인사에 맞대응

월하스님이 주관해 9월 28일 열린 통도사 산중총회는 신허스님(표창사 주지)을 새 주지로 선출했다. 또 영배 지견 태연 명현스님을 제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 총무부장 원택스님은 “이미 중법에 따라 현문스님을 주지직무대리로 임명했다”며 “현문스님이 적절한 시기에 산중총회를 열어 주지를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스님은 기도와 교화... 절 운영은 신도”

지광스님, 능인선원 발전배경 발표

연건평 4천여평에 달하는 초현대식의 복합건물(지상 3층, 지하 5층)에 7백여평의 법당과 사회복지시설을 갖춰 22만여 명이 되고 있는 서울 능인선원. 1984년 서울 강남의 조그만 상가건물(28평짜리 월세 사무실)을 빌려 시작한 능인선원이 국내 최대 규모의 포교당을 이루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능인선원장 지광스님은 9월 20~21일 용인 중소기업개발원 연수원에서 열린 조계종 수도

권·강원지역 분말사 주지 연수회에서 이런 금강종을 시원하게 풀어냈다.

지광스님은 능인선원의 발전과 성취 요인으로 스님은 기도와 교화만 하고 절 운영은 신도에 일체 위임 스주지가 새벽예불과 기도(매일 3천여명 참여)를 출선수행 스님행(기도, 의식, 참선 등)과 교리를 겸비한 신도교육(4개월 과정의 능인불교대학, 1년과정의 경전연구반, 1년과정의 법사대학원) △ 철저한 신도조직(760여개의 지

역 가정법회 조직과 불교대학 기별 총동창회 중심)과 관리 스님과 신도가 하나가 된 원력 과 정진 등을 들었다.

지광스님은 절 살림 일체를 평신도에게 맡기고 스님은 오로지 수행과 교화에만 전념하는 분업의 원칙을 정립한 것이 발전의 원동력이었다며, 특히 사찰 재정의 투명화(능인선원 신협 창립, 매일 시웃돈 입금 처리)가 이뤄짐으로써 신도들이 직접 재정을 관리(주지는 결재만)토록함으로써 신도들의 주인의식을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재경 기자

뉴스 & 뉴스

‘행자교육원 상설화’ 결의

조계종 행자교육원 운영위원회(위원장 일면·교육원장)는 9월 17일 직지사에서 도법(실상사 화엄학림 학장) 무관(교재편찬위원장) 철우(영산율원장) 혜능(해인율원장) 지현(송광율원장)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열고 상설 행자교육원 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운영위원들은 조계종 승가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기초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행자교육원 상설화가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행자교육원 건립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종단 내외의 중지를 모으기로 했다. 김재경 기자

경북지역 분말사 주지 연수

조계종 교육원(위원장 일면)은 9월 29~30일 제8교구 분사 직지사서 경북지역 분말사 주지 연수회를 실시했다.

모두 214명의 스님이 참석한 이번 연수회에서 분말사 주지사님들은 토론회를 통해 “사찰환경 수호를 위해 정통사찰보존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의했다. 김재경 기자

경승단 소식지 ‘등불’ 창간

대한불교경승단(총재 고산·조계종 총무원장)은 경승단 소식지 및 경찰포교지인 ‘등불’ 창간호를 9월 15일 발간했다. 32쪽 분량의 소책자로 발행된 이 소식지는 △초대석·이상현 동국대 행정대학원장의 수필 △절을 찾아서(답사 안내) △우리는 부대(김호철 강동경찰서 경감) △청년 열보기(청소년 지도방법 안내) △불자생활 지침(포교연구실 사무국장 법성스님 지재) △어울림 마당(모범불자, 선경경찰 소개 및 경찰가족 소식) 등이 실렸다. (02)720-7062 김재경 기자

정토회, 서울 NGO대회 참가

정토회(이사장 법륜)산하 좋은벗들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제이티에스 등 3개단체는 10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서울 NGO 세계대회에 참가한다. 이번 대회에서 정토회 3개단체는 인간존중과 인권, 윤리와 가치, 경제·사회개발분야에서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NGO의 역할’, ‘생태적 깨달음과 소비주의 극복’, ‘제이티에스 합일농장시례 및 한국 대북 NGO 농업지원 현황과 주제’를 법륜스님이 발표하게 된다. 김원우 기자

장애인 무료합동결혼식

충북 재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진효)은 8일 오전 10시 30분 시내 유류예식장에서 개관 1주년 기념식 및 장애인 무료합동결혼식을 거행한다. 이날 3쌍의 장애인에 대한 지역민들의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한명우 기자

유마선원 토요수련회

불교수행의 정수를 알고 싶으신가요?
→ **여기 금강경 공판본이 있습니다.**

- 수행지: 유마선원장 직역 이재열 법사 · 일시: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 교편: 유마선원 전철·3호선 화정역 1번출구 덕양우체국 앞
- 버스: 신촌 921(좌), 영등포82(좌), 서울역 907(좌)
- 문의: 0344-967-9122

통도사 주지 2명(?)

정확측 신허스님 선출
총무원 인사에 맞대응

월하스님이 주관해 9월 28일 열린 통도사 산중총회는 신허스님(표창사 주지)을 새 주지로 선출했다. 또 영배 지견 태연 명현스님을 제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총무원 총무부장 원택스님은 “이미 중법에 따라 현문스님을 주지직무대리로 임명했다”며 “현문스님이 적절한 시기에 산중총회를 열어 주지를 선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스님은 기도와 교화... 절 운영은 신도”

지광스님, 능인선원 발전배경 발표

연건평 4천여평에 달하는 초현대식의 복합건물(지상 3층, 지하 5층)에 7백여평의 법당과 사회복지시설을 갖춰 22만여 명이 되고 있는 서울 능인선원. 1984년 서울 강남의 조그만 상가건물(28평짜리 월세 사무실)을 빌려 시작한 능인선원이 국내 최대 규모의 포교당을 이루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능인선원장 지광스님은 9월 20~21일 용인 중소기업개발원 연수원에서 열린 조계종 수도

수행자를 위한 건강 코르크 수제화신발 “권행”

스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스님전용신발 “만행”

길없는 길위에 서 있는 수행자들만을 위한 전용신발 - 권행만행

건강 코르크 신발의 구조와 기능

◆구조: 反射原理(반사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의 발바닥과 발에는 63곳의 반사점(경혈)이 (피츠제너럴 드브사이론)약식(건강법) 있습니다. 이 반사구에 적당할 때 힘이 가하여 질때 집중된 말초신경의 에너지 순환작용을 활성화 시켜 질병은 현저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가장 탁월한 예방의학적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신발 만행은 발의 반사구를 골고루 밀착 자극하여 주는 인체 공학의 설계와 천연 코르크의 뛰어난 특성과 최고급 피혁이 삼위일체를 이루어 신고 걷는 사람의 체중과 적합한 조화가 이루어 지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기능: 循環原理(순환원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체에는 혈관의 중형 무진으로 뻗어 있고 이 혈관을 크게 나누면 동맥·정맥·모세혈관의 3가지로 구분합니다. 동맥은 영양과 산소를 나르고 정맥은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나르고 모세혈관은 동맥이 운반해 온 것을 신체 구성구석의 세포로 건넌주고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정맥으로 나릅니다. 어느 기관의 부위가 불건강하면 그 순환기능이 반드시 불량 현상을 일으켜 말초신경 및 지구인력의 작용에 의하여 노폐물과 이산화탄소가 무릎 위 10cm까지 고이게 됩니다. 그때 발의 반사구를 적절히 비벼주거나 자극을 가하면 신장등의 배설기관에 의하여 쌓여있던 노폐물이 제외로 배출되어 집니다.

권행문의 0342)742-0296. 742-0297
권행대표 박동진 합장

창사 20주년 기념

제1회 민족사 새 글 공모전

오는 2000년, 창립 20주년을 맞는 민족사는 새 글 공모전을 통해 참신하고 역량있는 필자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이에 새로운 내용과 형식으로 부처님 말씀을 전할 창의력 있는 원고를 모집합니다. 불자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불교출판의 활기를 불어넣을 재능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1. 모집분야

- 불교대중서로서 기존에 발표된 적이 없는 새로운 주제와 형식의 글
- 불교입문서, 교리해설, 산문집, 불교문화예술, 사찰기행 등(단, 학술서, 시·소설류는 제외)

2. 자격 및 방법

- 자격: 창조적인 글쓰기에 자신있는 모든 분
- 방법: 집필원고의 개요(A4 1장 내외)
- 집필원고(원고지 800매 이상)
- 간단한 프로필 및 주소, 전화번호, 본명 명시
- 우편접수시 결봉에 ‘공모작품’ 명시

3. 일정 및 수상내역

- 응모기간: 2000년 3월 31일까지(소인유효)
- 수상발표: 2000년 5월 2째주 불교계 신문(당선자 개별통보)
- 수상내역: 대상 1편 300만원
- 우수상 2편 100만원

*공모작품은 반환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수상작의 우선 출판권은 민족사가 소유합니다. (또한 출판할 경우 저자와의 계약을 통해 별도의 인세가 지급됩니다.)

민족사 민족사는 좋은 책으로 좋은 세상을 꿈꾸는 곳입니다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08-1 금강빌딩 3층 전화) 732-2403-4, 722-7679 팩스) 739-7675